

지역 소식통

고창군, 국가유공자 집 '명패 달아드리기' 진행

고창군은 '호국보훈의달'을 앞두고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최정길)과 함께 이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명패달아드리기 지원대상은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대상으로 총 253명이다. 지난 27일 유기상 고창군수와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5가구를 선정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월남참전유공자 김양수전 회장과 현 고임규 회장 자택과 무공수훈자 성홍제 회장을 비롯한 신림면 김진휴, 박래길씨다.

유 군수는 김옥식 회장택을 비롯해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3가구를 방문해 명패를 달아드리고, 회생과 공훈에 감사의 표시를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호국보훈을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에게 직접 명패를 달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상설시장 특화상품 작년 이어 홍콩 수출길

부안상설시장이 자체 특화상품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홍콩에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품목은 부안참뱅간장새우(1500개)와 부안참뱅간장전복(1500개) 등 총 3000개(약 2만 2000달러) 물량으로 작년과 비슷한 규모다.

수출한 품목들은 홍콩의 중형마트 5곳에서 구매업체 'New World Trading Company'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부안상설시장 특화상품 개발은 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해 올해 3년차를 맞는 부안상설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에서 부안상설시장을 경제·문화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해외수출은 매년 국내 시장박람회 참가에 외부고객을 향한 부안상설시장의 지속적 특화상품 홍보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다. 의미가 더욱 크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전방위 예산활동

유진섭 시장, 국토부 방문... 4개 현안사업 당위성 역설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 내년도 예산반영 적극 요청

정읍시가 2021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비롯한 정읍시 방대단은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2021년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다.

유 시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토교통부 소관 4개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내년도 각 부처 예산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만큼 유 시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의 중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건의한 4개 사업은 ▲동진강 국가생태하천 조성사업(284억) ▲국지도 49호선(부전~철보) 시설개량사업(1,089억) ▲동부 내륙권(정읍~남원) 국도건설사업(5,983억) ▲제4차 국가철도망(정읍~전주) 반영(1조 3천억) 사업이다.

유 시장은 "이들 사업은 코로나 19로 지친 정읍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구 국회의원과 도내 정치권, 출향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시장은 지난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토교통부 소관 4개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유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만나 농생명 연구개발특구 내 핵심연구기반을 활용한 정읍시 발전을 건의할 6개 사업을 건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정읍시, '라이스 랩' 공모 선정

쌀 활용한 시제품 개발 등 지원  
국비1억원·도비 3000만원 확보

정읍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라이스 랩(Rice Lab) 운영사업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라이스 랩 사업은 쌀의 가치를 높이고 쌀을 활용한 새로운 시제품 개발

과 판매 및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가공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읍시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쌀 가공 산업 선도 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유기농비건과 단풍고을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해이담 영농조합법인이 '정읍라이스랩협력단'이라는 이름을

로 새로운 레시피와 시제품 개발, 운영·매장관리를 앞으로 담당하게 된다.

시는 유망인구가 많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7곳과 생화학 거리, 내장산 관광기념품 판매장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쌀 제품의 고급화와 요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키트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제품의 상품화를 유도하여 쌀 소비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국무총리 기관 표창 영예

정읍시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높은 성과를 보이며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국가방위 요소와 예비군육성 유공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했다.

제8008부대 4대대장(김길중 중령)은 28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60만원을 전달했다.

시는 그간 을지태극연습과 충무·화

랑훈련 등 각종 훈련에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또한 매년 예비군육성지원 사업비를 증액 편성에 예비군 작전과 교육 훈련, 부대 운영 지원과 지역 방위작전 등 예비군 전투태세 완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움직임에 대비해 완벽한 통합방위업무 추진으로 통합

방위의 사기를 높이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공조 체계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만일에 비상사태를 대비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완벽한 통합방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무엇보다도 지역 안보가 바로 서야 국가안보도 보장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경전자(주), 임성규네고구마 영농조합법인, 늘푸른주근보호센터, 농업회사법인 국순당고창명주(주), 질마재푸드영농조합법인, (주)리온, 서울시너스타워(주)고창본부 7개 업체는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창"

고창군·전북여성새일센터, 여성일자리 창출 '맞손'

고창군이 28일 고창군여성회관에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한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고창군 관내 15개 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직장 문화개선을 위한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통해 참석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또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경전자(주), 임성규네고구마 영농조합법인, 늘푸른주근보호센터, 농업회사법인 국순당고창명주(주), 질마재푸드영농조합법인 (주)리온, 서울시너스타워(주)고창본부 7개 업체는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여성일자리창출 협력회의 참

여기업은 여성 인력채용을 통해 새일 여성인턴 지원금과 기업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업회사법인 (주)풍성식품이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에 선정돼 여성휴게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여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천선미 고창부군수는 "앞으로도 기업 관계자와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여성친화도시 고창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관광자원·역사성 활용 독자적인 경쟁력 높여야"

김연식 부안군의원 5분 발언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주산·동진·백산 선거구)이 최근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민의 관광자원을 유서 깊은 역사성을 활용하여 희소성 있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연식 의원은 현재 부안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부안이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첫째, 조선왕조 궁중에서 행해지던 누에치기 의식인 '진잠례' 행사를 개최하여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부안 양잠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



이고, 부안의 양잠·오디 기술이 다양한 융·복합 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심을 모아야 하며, 둘째, 청자박물관을 중심으로 도자산업을 관광 벨트화하여 부안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안 고려삼강청자 관광 벨리 조성 사업'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식 의원은 끝으로, 지금 부안의 최대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특히, 부안민의 관광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성을 활용하여 희소성 있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5분 발언 수단을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